

담배가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전부터 알려진 담배의 결점입니다. 하지만, 담배와 커피 모두 기호식품이고, 커피도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똑같은데도 왜 커피는 규칙을 만들어 금지하지 않습니까. 담배는 공공장소에서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커피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담배도 커피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담배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담배의) 결점을 알고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선택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게 당연합니다.

기호품이 모두 그렇듯이 장점도 단점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배는 몸에 나쁘긴 하지만, 화났을 때, 담배를 피우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체에 나쁘다는 단점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담배는 커피보다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신 스스로 자제할 필요는 있지만, 금지규칙을 만들어서 흡연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과 권리를 제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단지 공공 장소에서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